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24. Vol. 37, No. 3, 119-150
https://doi.org/10.24230/kjiop.v37i3.119-150

# 한국판 FFMI(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타당화 연구

남 창 형† 서 종 한‡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인 FFMI(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를 국내에 타당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마키아벨리즘은 어두운 3요소 성격 중 하나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목적지향적 성격 특성을 가진다. 연구 1에서는 FFMI를 국내 정서에 맞게 번역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 21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상위 3요인 구조인 주체성, 계획성, 적대감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하위요인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만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FFMI의 일반화가 가능한 도구임을 확인하였으며, Rasch 검정을 통해 FFMI의 5점 리커트 척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문항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52문항 중 측정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의 세 문항을 제외하고 적절한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준거 척도와의 수렴타당도 및 상관분석을 통하여 FFMI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도구이며 마키아벨리즘의 이론적 특성들을 잘 나타낸 평가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FFMI, 마키아벨리즘, FFM, Rasch

† 제1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 007sis58@gmail.com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jonghansea@y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마키아벨리즘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유래된 개념이다(Christie & Geis, 1970).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권력, 명예, 재산을 추구할 때 무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Machiavelli, 1532; 2020). 이는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정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냉철한 방법을 강조한다.

Christie와 Geis(1970)는 마키아벨리즘을 하나의 성격적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상황을 주도하며 타인을 통제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격으로 묘사된다. 특히,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개인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희생시키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은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와 함께 ‘어두운 3요소 성격(Dark Triad; 이하 DT)’으로 불리며, 사회적 부적응과 연관이 높은 성격 개념으로 대표된다(Paulhus & Williams, 2002). 개인의 성격이 행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Eysenck, 1979), 개인의 고유한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두운 3요소 성격을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은 화려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묘사되며 외향성과 관련이 깊다(Vize et al., 2018). 사이코패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냉정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며,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Hare, 1991).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즘은 야심적이고 계획적이며 무도덕하고 착취적인 특성을 가진다(Christie & Geis, 1970). Paulhus와 Williams(2002)는 이들 세 성격들이 타인에게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는 핵심 요소를 공유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성격으로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성격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Glenn & Sellbom, 2015), 대부분의 DT 연구들은 이를 구분 가능하다고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ollison et al., 2018; Furnham et al., 2013; Mayor et al., 2020; Vize et al., 2020). 최근에는 사디즘을 추가한 ‘어두운 4요소 성격(Dark Tetrad)’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권혁준 등, 2023; Buckels et al., 2020).

국내외에서 마키아벨리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격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조직 내에서 반사회적인 업무 행동이나 해롭고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Fehr et al., 1992). 이러한 특성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 행동과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호 협력보다는 파트너를 배신하거나 변절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김희송 등 2011; 박민정, 송지훈, 2023; Erkutlu & Chafra, 2019).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 애정과 사랑의 접근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Jonason & Kavanah, 2010). 이렇듯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개인은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파괴적이고 해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파괴적이고 해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이해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존 마키아벨리즘 측정의 문제점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는 MACH-IV(Christie & Geis, 1970)와 Machiavellian Personality Scale(MPS; Dahling et al., 2009)이 대표적이다. 다른 어두운 성격을 함께 측정하는 경우에는 Dirty Dozen(DD; Jonason & Webster, 2012), Short Dark Triad(SD3; Jones & Paulhus, 2014), Short Dark Tetrad(SD4; Paulhus et al., 2020)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들은 마키아벨리즘이 아닌 사이코패시를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Kückelhaus et al., 2021; Miller et al., 2017; O'Boyle et al., 2015; Persson et al., 2019; Rogoza & Cieciuch, 2020; Vize et al., 2018).

선행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 도구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두 측정 도구 간의 높은 중복성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를 통해 얻은 마키아벨리즘 성격 프로파일을 성격 5요인(Five Factor Model)과 비교한 결과, 마키아벨리즘 성격 프로파일이 사이코패시 성격 프로파일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O'Boyle et al., 2015). 또한, 기존 마키아벨리즘 및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모두 충동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 능력, 낮은 책임감과 성실함을 나타냈다(Miller et al., 2017). 이는 냉담함, 무정성, 자기 중심성, 조작적이고 충동적인 사이코패시의 성격 프로파일과 유사하다(Douglas et al., 2014).

또한 어두운 3요소 성격 특성을 함께 측정하는 DD와 SD3의 요인분석 결과, 마키아벨리즘-사이코패시가 결합된 2요인 구조의 모형이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으로 구성된 3요인 구조의 모형과 적합도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Miller et al., 2017; Persson et al., 2019; Rogoza, 2018). 결론적으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의 측정이 사이코패시와의 상당한 중첩성을 보고하였고,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의 측정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또한 국외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사이코패시와 강한 중첩성을 보이는 MACH-IV는 현대 응답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Miller et al., 2019), 성별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응답자들이 문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Oksenberg, 1971), 요인구조의 불안정성이 나타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김희송 등, 2011). 국내에서 타당화된 평가 도구로 알려진 K-MPS는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인 LSRP (Levenson et al., 1995)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김희송 등, 2011) 국외에서 지적된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지적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어두운 3요소를 함께 측정하는 평가 도구에서도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요인이 합쳐지거나 문항이 서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박종철 외(2021)의 SD3와 조호진 등(2022)의 DD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가 결합된 마키아벨리즘-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 2요인 구조를 보고하였고, 박소향 외(2022)의 DD와 SD3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문항이 혼재된 양상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즘을 사이코패시와 함께 측정하는 평가 도구에서 두 개념의

혼재 현상과 측정의 불안정성이 보고되었다.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서 나타난 문제는 평가 도구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이는 마키아벨리즘 연구에서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iller 등(2017)은 어두운 3요소 성격에 대한 논문을 게재한 43명의 전문가를 통해 마키아벨리즘의 성격 5요인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사이코패시와 구별되는 성격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먼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개인은 전략적 사고와 신중함으로 자제력이 높다. 반면, 사이코패시는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자제력이 낮다(DeLisi et al., 2018). 마키아벨리즘은 목표 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반면, 사이코패시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Newman et al., 1992).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개인은 비폭력적이며 신중하고 전략적이므로 쉽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Poter et al., 2006).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개인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 상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이코패시는 분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Blair, 2018; Coccaro et al., 2014; Hicks & Patrick, 2006).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개인은 높은 성실함과 목표 지향성을 가지며, 보상 반응성, 정서적 안정성, 직업적 성공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Sharp et al., 2021).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마키아벨리즘 성격 프로파일은 사이코패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들은 이러한 구별되는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마키아벨리즘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FMI와 본 연구의 목적**

사이코패시와 다른 성격 프로파일을 가진 마키아벨리즘에 대해 Collison 등(2018)은 FFMI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라는 새로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대안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FFMI는 학문적으로 잘 검증된 성격 5요인을 다루는 FFM(Five Factor Model; McCrae & John, 1992)에 기반한 평가 도구이다. FFM은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검증된 평가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Culture and Psychology, n.d.). FFM을 기반으로 한 평가 도구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에 비해 강력한 타당성을 보고하였다(Lynam et al., 2011; Miller et al., 2013; Wilson et al., 2011). FFMI는 FFM의 세밀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마키아벨리즘의 다양한 성격적 요소를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세르비아인을 대상으로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FFMI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Grabovac& Dinic, 2022) FFMI가 기존 도구에서 평가하지 못한 외향성과 성실성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공격적 행동 통제와 부정적 정서 조절과의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즘의 주체적 성격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FFMI 총점은 대인관계와 직업적 성공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주체성(Agency)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정서적 안정성과 직업적 성공 욕구를 가진 마키아벨리즘 특성(Sharp et al., 2021)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서는 측정하지 못했던 직업적 성공과 더 긍정적인 관

련성을 보이면서 비도덕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냉담한 개인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ückelhaus & Blickle, 2021). 또한, 전통적인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들은 반생산적인 업무 행동과 낮은 업무 성과와 관련이 있는 반면, FFMI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Kückelhaus & Blickle, 2021; 재인용). 따라서 FFMI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측정하지 못했던 직업적 성공과 정서 조절 능력, 낮은 충동성과 공격적 행동 통제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마키아벨리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인 FFMI를 타당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원척도의 개발 배경과 동일하게 각 하위 요인의 단일차원을 판단하여 문항 묶음을 실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요인수효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활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최종 모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Rasch 검정을 통해 통합적 차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준거 척도와의 수렴타당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1. 탐색적 요인분석 및 부분제약 목표회전

## 방 법

###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해 전문패널데이터 회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의 국내 일반인 210명으로 성별 간 혼입을 막고 평가 도구가 다양한 연령 및 성별에 신뢰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균일하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별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면 성별에 따른 혼입 변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106명(50.48%), 여성 104명(49.52%)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인구통계학적 분류는 20대 43명(20.48%, 남성 22명, 여성 21명), 30대 42명(20.00%, 남성 21명, 여성 21명), 40대 42명(20.00%, 남성 21명, 여성 21명), 50대 41명(19.52% 남성 21명, 여성 20명), 60대 이상 42명(20.00% 남성 21명, 여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 FFMI(Five Factor Maciavellianism Inventory)

Collison 등이 2018년에 개발한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로 FFM(Five Factor Model)을 기반으로 한 성격 5요인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이다. 전문가 프로파일을 통해 낮은 충동성과 높은 성실성을 포함한 13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하위요인 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네 개 문항씩 13개의 하위요인 이루어진 최종 52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원척도에서 13개의 하위요인은 적대감(antagonism), 주체성(agency), 계획성(planfulness)의 3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적대감은 이기심(selfishness), 우월감(immodesty), 조종성(manipulative), 냉담함(callousness), 냉소성(cynic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체성은 성취욕(achievement), 활동성(activity), 적극성(assertiveness), 유능함(competence), 안정감(invulnerable), 자신감(self-confidence)으로 구성되었으며 계획성은 신중함(deliberation)과 체계성(order)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는 .67~.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8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60~.77으로 나타났다.

### FFMI 번역절차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FFMI의 원 저자인 Lynam과 공동저자인 Miller와 함께 교신저자, 이중 언어 통역전문가가 번역과정을 함께하였다. 본 평가 도구의 번역을 위해 교신저자와 원저자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항목에 대한 개념의 특징과 문항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52문항을 번역한 뒤 이중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역번역이 이루어졌다. 역번역 이후 Lynam과 Miller의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원저자의 피드백을 통해 첫 번째 피드백에 모호하거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연구실 인원 한명이 추가로 번역 작업을 같이하였으며 이후 이중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역번역을 완성하였다. 두 번째 역번역을 다시 원 저자(Lynam)와 공동저자(Miller)에게 전달되었고 재차 검토 후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같은 과정을 총 세 번 반복하여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가독성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마지막 보완과 수정을 통해 최종 FFMI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 분석 방법

FFMI의 요인구조를 활용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ary Factor Analysis; EFA) 및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묶음의 활용을 위해 각 하위요인이 단일차원인지 잔차 주성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은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여 주성분을 추출하지만 잔차 주성분 분석은 Rasch 이후 남은 잔차를 분석하여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성, 예상치 못한 패턴이나 구조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에서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주요 차원에 대한 정밀성을 개선할 수 있다. 잔차 주성분 분석으로 나타난 하위요인의 예측되지 않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고유값이 3 이하일 경우, 각 하위요인이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고.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차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최진혁 외 2021; Chiang et al., 2009; Linacre, 2004). 따라서 잔차 주성분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각 하위요인이 단일차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문항묶음에 활용하였다.

단일차원이 확인된 자료를 요인별로 문항묶음하여 13개의 하위요인을 산출하였고 하위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 지표변수로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표본의 개수가 지표변수의 다섯 배 정도면 적합하다는 제안(Corsuch, 1983)에 따르면, 연구 1에서 활용된 지표변수는 하위요인 13개이므로 210명의 표본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13개의 하위요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KMO 측정치를 구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후 스크리 도표를 산출하였고 변곡점을 확인하여 요인수효를 결정하였다. 확인된 요인수효를 통해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회전방법은 Geomin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 지표변수의 이중적재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제약 목표회전(target rotation)을 활용하였다. 부분제약 목표회전은 요인부하 행렬을 회전할 시 일부 지표변수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맞게 0에 가까운 값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부하량을 0으로 고정하지만 부분제약 목표회전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함수에 회전을 더한다. 또한 부분제약 목표회전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회전에 제약을 더하여 요인과 모수 간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활용하면 두 요인분석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요인구조를 가지는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에 효과적이다(이수빈, 이유경, 서종한, 2022).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의 모형 적합도로 RMSEA, CFI, TLI, SRMR 값을 확인하였으며 Vandenberg와 Lance(2000)가 제안한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 값이 .08 이하, SRMR 값이 .10 이하의 값을 가질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KMO와 Bartlett 통계치와 스크리 도표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썬 3.12를 활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위해 Mplus 8.3을 활용하였다.

## 결 과

### 단일차원 검증

표 1에서는 잔차 주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잔차 주성분 분석(PCA)로 예측되지 않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고유값이 3 이하일 경우 단일차원을 만족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60~.77의 범위를 나타내어 비교적 낮은 값을 보고하였으나, FFMI의 각 하위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는 문항의 개수에 영향을 받게 되며, 문항의 개수가 적을 경우 .60 이상의 신뢰도도 수용가능하다는 제안(Nunnally, 1978)에 따라 FFMI의 신뢰도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은 단일차원을 만족하며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묶음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 요인분석

#### 요인분석 가능성

FFMI 13개 하위요인의 KMO의 값은 .786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x^2 = 501{,}181$ ($p < .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스크리 도표의 변곡점을 확인하여 FFMI에 3요인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잔차 주성분 분석을 통한 단일차원 검증

| 요인 | 예측되지 않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고유값 | 예측되는 분산 | 신뢰도 |
|---|---|---|---|
| 성취욕 | 1.6834 | 51.5% | .70 |
| 활동성 | 1.5901 | 55.9% | .73 |
| 이기심 | 1.7647 | 52.4% | .68 |
| 적극성 | 1.6632 | 44.1% | .60 |
| 유능함 | 1.5605 | 56.0% | .71 |
| 신중함 | 1.7399 | 47.9% | .70 |
| 안정감 | 1.4490 | 51.0% | .66 |
| 우월감 | 1.6282 | 41.6% | .67 |
| 체계성 | 1.6043 | 44.6% | .73 |
| 자신감 | 1.5540 | 54.1% | .77 |
| 조종성 | 1.4286 | 55.3% | .60 |
| 냉담성 | 1.5251 | 43.8% | .66 |
| 냉소성 | 1.4019 | 50.9% | .66 |

**탐색적 요인분석 및 부분제약 목표회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RMSEA .049, CFI .966, TLI .936, SRMR .033의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지표변수의 이중적재가 존재하여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실시하였으며 부분제약 목표회전 활용 시 적합도는 RMSEA .037, CFI .981, TLI .964, SRMR .031를 나타내어 모형 적합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표변수의 이중적재 또한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하나의 요인이 .30 이상의 부하를 보이는 경우 해당 요인에 할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1에는 성취욕(achievement), 활동성(activity), 적극성(assertiveness), 유능함(competence), 안정감(invulnerable), 우월감(immodesty), 자신감(self-confidence)이 적재되어 본래 적대감(antagonism)의 하위요인인 우월감이 주체성(agency)요인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2에는 이기심(selfishness), 조종성(manipulative), 냉담함(callousness), 냉소성(cynical)이 적재되어 원척도의 적대감(antagonism)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3에는 신중함(deliberation)과 체계성(order)이 적재되어 원척도와 동일한 계획성(planfulness)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의 경우 두 개의 지표변수가 적재되었지만, 문항수준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것이 아닌 문항묶음을 활용해 하위요인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여덟 문항이 요인 3에 적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척도 개발 과정에서 계획성(planfulness) 상위 요인에 신중함(deliberation)과 체계성(order) 하위요인이 적재된 것과 동일한

표 2. 탐색적 요인 분석 및 목표회전 요인부하량

| | EFA | | | 목표회전 | | |
|---|---|---|---|---|---|---|
| 요인명 | 요인1 | 요인2 | 요인2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성취욕 | **.562** | **.335** | -.003 | **.594** | .229 | -.081 |
| 활동성 | **.575** | -.040 | .273 | **.570** | -.176 | .153 |
| 적극성 | **.519** | -.014 | .125 | **.523** | -.059 | .069 |
| 유능함 | **.511** | -.018 | **.307** | **.514** | -.139 | .200 |
| 안정감 | **.519** | -.015 | .187 | **.514** | -.135 | .082 |
| 우월감 | **.760** | .288 | -.012 | **.778** | .134 | -.131 |
| 자신감 | **.751** | .135 | .124 | **.757** | -.028 | -.011 |
| 이기심 | -.207 | **.486** | .006 | -.130 | **.560** | .085 |
| 조종성 | -.001 | **.598** | -.120 | .078 | **.635** | -.066 |
| 냉담성 | -.015 | **.405** | -.086 | .039 | **.434** | -.046 |
| 냉소성 | -.357 | .221 | .036 | -.290 | **.312** | .121 |
| 신중함 | -.002 | .004 | **.551** | .036 | -.006 | **.534** |
| 체계성 | .000 | .132 | **.891** | .079 | .122 | **.873** |

주. 볼드체 부분은 .30 이상의 요인 부하를 보이는 것을 의미

결과를 보여주었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않은 FFMI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알아보았다. 본 평가 도구의 경우 문항 수가 많고 마키아벨리즘의 다차원적 성격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원척도의 개발 과정을 참고하여 13개 하위요인의 단일차원을 검증하였다. 이후 각 하위요인을 문항묶음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지표변수의 이중적재를 해소하고자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모형적합도가 상승하였고 지표변수의 이중적재 또한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원척도와 동일한 상위 3요인 구조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3개의 상위 요인은 주체성, 계획성, 적대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원척도 적대감(antagonsim) 요인의 우월감(immodesty)이 본 연구에선 주체성(agency) 요인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월감은 원척도 개발 과정에서도 주체성 요인에 .318의 요인부하량을 가졌지만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는 완전히 주체성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감의 문항은 '사람들에게 겸손이란 덕목은 지나 치게 좋은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또래들보다 더 똑똑하다.' '내 동료

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은 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의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월감의 문항들은 '나는 남들보다 낫고 뛰어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월감 요인이 타인에 대한 낮은 우호성인 적대감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체성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아일보(2023)의 조사 결과 36.5%의 응답자가 한국과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로 '경쟁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경쟁적인 학업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하였으며(Jarvis et al., 2020), 이는 대학 입시, 취업 경쟁, 사회 생활 등 삶의 전반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석되는 우월감 요인은 타인을 억누르기 위한 적대감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체성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잡코리아의 통계자료(2016)에 의하면 국내 대학생의 86.4%, 직장인의 89.0%가 자기계발에 대한 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자기계발은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펙 개발을 의미하는데,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많이 무엇인가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경쟁과 같은 경쟁에서 낙오가 되지 않게 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허창구, 2017). 따라서 과도한 경쟁 사회라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오용석, 2018; 윤민재, 2020; 허창구, 2017) 일반인들에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며,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우월감 요인의 문항들은 타인에 대한 낮은 우호성인 적대감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월감 요인이 국외와 구별되어 적대감이 아닌 주체성으로 해석된 이유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체면 문화와 관련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로 정의된다(강길호, 2009). 서구 사회에서는 체면이 개인의 자율성과 능력을 중시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규칙을 따르는 규범적 체면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과시적 체면을 중시하게 된다(Brown & Levinson, 1987).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체면은 자기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짙은 것으로 설명된다(최상진, 유승엽, 1992). 이렇듯 국내에서 나타나는 과시적인 체면 문화는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드러내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을 과시하는 우월감 요인은 한국의 체면 문화가 반영되어 자신의 성과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주체성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 우월감 요인이 주체성 요인으로 이동한 까닭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통합적 개념의 타당도 검증

###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해 전문패널데이터 회사를 이용하

였으며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성별 간 혼입을 막고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과는 다른 표본인 만 19세 이상의 국내 일반인 300명으로 남성 153명(51.00%), 여성 147명(49.00%)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인구통계학적 분류는 20대 61명(20.33%, 남성 32명, 여성 29명), 30대 59명(19.67%, 남성 30명, 여성 29명), 40대 60명(20.00%, 남성 30명, 여성 30명), 50대 60명(20.00% 남성 30명, 여성 30명), 60대 이상 60명(20.00% 남성 30명, 여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측정도구

**FFMI(Five Factor Maciavellianism Inventory)**

FFMI의 본 연구 활용을 위해 Collison et al(2018)의 3요인 구조가 아닌 연구 1의 결과를 반영한 FFMI를 활용하였다. 각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값은 .776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 값은 .60에서 .78로 나타났다.

## 준거척도

**K-MPS(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

Dahling 등(2009년)이 개발한 MPS를 김희송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전체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불신, 부도덕적 조종, 지위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NEO 성인판 단축형**

본 척도는 McCrae와 John(1992)가 제안한 성격 5요인 모델을 기반으로 안창규, 안현의(2017)이 국내 정서에 맞게 개발한 NEO 성인용 성격검사를 문희정, 안현의(2022)가 단축한 척도로 NEO 성인용 성격검사의 요인별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다섯 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25문항으로 단축한 평가 도구이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의 5요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SD4(Short Dark Tetrad)**

Paulhus 등(2020)이 기존의 SD3에 사디즘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어두운 4요소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검사 도구이다.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사디즘의 4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요인당 일곱 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D(Dirty Dozen 12)**

Jonason & Webster(2010)이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즘의 어두운 3요소 성격을 평가하고자 개발한 1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요인당 네 개 문항씩 구성된 12문항의 검사도구이다.

**BIS-11(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d)**

Barratt이 1959년에 개발한 충동성을 측정하는 30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로 주의, 운동, 무계획 충동성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선 이소라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RPQ(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aire)**

Raine et al(2006)이 개발한 공격성을 측정하

는 23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로,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AQ(Agression Questionaire)**

Buss & Warren(2000)이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4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적대심, 분노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TAXI(상태 특성 분노표현 척도)**

Spielberger, Krasner, Solomon이 1988년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4문항의 척도로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 분노표현(통제, 표출, 억제 각 여덟 문항) 2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CASES(Cognitive Affective Somatic Empathy Scale)**

Raine et al(2018)이 개발한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공감척도는 긍정적 및 부정적 공감을 위한 세 가지 공감 형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인지적 공감 10문항, 감정적 공감 10문항, 신체적 공감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1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통해 구성된 FFMI의 일반화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원척도의 개발과정을 참고하여 각 하위요인의 단일 차원을 확인하여 문항묶음하였다. 원척도에 맞게 문항묶음을 하여 모형을 검증하게 되는 원리를 가진 CFA에서는 문항묶음을 권장한다(Kline, 2023).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Mplus 8.3을 활용하였고 모수 추정 방식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활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로 RMSEA, CFI, TLI, SRMR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Vandenberg와 Lance(2000)가 제안한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 값이 .08 이하, SRMR 값이 .10 이하의 값을 가질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통합적 개념의 타당도 검증

통합적 개념의 타당도 검증은 평가 도구나 측정 방법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개념은 Messick(1990)이 제안하였으며, 타당도를 단순히 평가 도구의 특성이나 문항 자체의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측정 도구의 내용, 응답자의 반응, 측정 결과의 의미와 관련성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Rasch의 평정척도모형(Rating Scale Model, RSM)을 이용하여 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분석한 잔차 주성분 분석(PCA)를 활용하여 각 요인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구조 측면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FFMI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응답범주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측면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적합도의 값이 2.0 이하로 나타나며 단계조정값(Step Calibration)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응답 범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Hong et al., 2005). 이후 내용 측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평균자승값(MNSQ)을 확인하였다. 평균자승값은 측정 모형에서 피

험자의 반응이나 문항이 모형의 기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주로 내적합도(Infit)와 외적합도(Outfit)으로 나타나는데, 내적합도는 피험자의 특질 수준에 가까운 문항에 대한 반응을 주로 반영한다. 내적합도의 값이 높으면 피험자의 반응이 예측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낮으면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적합도는 피험자의 특질 수준과 많이 차이가 나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주로 반영한다. 외적합도 값이 높으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 낮으면 반응이 비교적 일관적임을 나타낸다(시기자, 성태제 2006; 유민지 등, 2023).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1과 가장 가까울 때이지만, Bond와 Fox(2001)에 따르면 적합도가 0.6~1.4 범위 안에 들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제시한다. 0.5~1.5 사이의 경우 생산적인 범위로 간주되고, 1.5~2.0사이는 다소 과도한 양상이지만 측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측정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였다(정혁, 2005; Linacre, 2004).

이어서 피험자와 문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 문항 분포도, 즉 Wright map을 확인하였다. 이 분포도는 FFMI를 측정하는 각 문항이 측정할 수 있는 특질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하지 못하는 특질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Wright map은 개인의 특질점수와 문항의 난이도를 로짓(Logit) 단위로 표현하며, 특질 수준과 난이도 간의 일치 정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평가 도구의 적합성과 범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평가 도구를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도구의 분리지수와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분리지수는 평가 도구 내의 각 문항 간 차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문항 분리지수와 측정 도구가 개별 피험자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보여주는 피험자 분리지수로 나뉜다. Rasch 모형에서 신뢰도는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정 오류를 포함하지 않아 분리지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문항 분리지수가 3.0 이상, 응답자 분리지수가 1.5 이상일 경우 측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높을수록 더 좋은 구분 능력을 보여준다(Lim, 2015).

### 수렴타당도 및 준거 척도와의 상관분석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간 측정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FFMI와 K-MPS, SD4., DD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이후 FFMI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구별되는 도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준거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첫째,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마키아벨리즘 척도와 사이코패시, 그리고 FFMI의 성격 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앞선 충동성과 공격성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BIS-11, RPQ, AQ와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또한,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를 측정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공감성에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그리고 FFMI와 CASES 간의 상관을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그리고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분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TAXI와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 결 과

### 단일차원 검증

잔차 주성분 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은 잔차 주성분 분석으로 예측되지 않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고유값이 3 이하로 나타나 단일차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묶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앞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FFMI의 3가지 요인을 일반화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CFA 3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RMSEA .049, CFI .949, TLI .923, SMRM .054으로 좋은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에서는 FFMI의 3요인 CFA의 13개 하위요인의 요인 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 FFMI 13개 하위 요인은 각 요인에 .30 이상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다.

### 통합적 타당도 관점에서의 타당도 검증

#### 응답 범주의 적절성

FFMI의 각 하위요인 각 범주의 외적합도의 값이 2.0 이하로 나타나며 단계조정값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응답 범주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외적합도 값이 2.0 이하였으며, 단계조정값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FFMI의 5점 리커트 척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FFMI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고차요인 | 하위요인 | 요인부하량 |
|---|---|---|
| 주체성 | 성취욕 | .350 |
| | 활동성 | .678 |
| | 적극성 | .587 |
| | 유능함 | .641 |
| | 안정감 | .531 |
| | 우월감 | .460 |
| | 자신감 | .727 |
| 적대감 | 이기심 | .728 |
| | 조종성 | .365 |
| | 냉담성 | .438 |
| | 냉소성 | .441 |
| 계획성 | 신중함 | .509 |
| | 체계성 | .913 |

#### 문항 피험자 분리지수 및 신뢰도

표 4에서는 FFMI의 전체 문항의 분리지수는 문항 분리지수가 전체 3 이상, 피험자 분리지수는 1.5 이상의 값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인별 Rasch 분석

주체성 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문항이 0.6~1.4의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적극성의 4번 문항인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가 내적합도 1.40, 외적합도 1.42의 값을 보였지만 0.5~1.5의 생산적인 정도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월감의 8번 문항인 '사람들에게 겸손이란 덕목은 지나치게 좋은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가 내적합도 1.49, 외적

표 4. 문항 피험자 분리지수 및 신뢰도

| 요인 | 분리지수 | | 신뢰도 | |
|---|---|---|---|---|
| | Item | Person | Item | Person |
| 성취욕 | 10.21 | 1.49 | .99 | .69 |
| 활동성 | 11.52 | 1.64 | .99 | .73 |
| 이기심 | 6.59 | 1.47 | .97 | .68 |
| 적극성 | 9.68 | 1.30 | .98 | .63 |
| 유능함 | 15.74 | 1.58 | .99 | .71 |
| 신중함 | 4.74 | 1.59 | .95 | .72 |
| 안정감 | 10.30 | 1.41 | .99 | .67 |
| 우월감 | 2.47 | 1.47 | .95 | .69 |
| 체계성 | 2.95 | 1.86 | .92 | .78 |
| 자신감 | 12.98 | 1.61 | .99 | .72 |
| 조종성 | 13.08 | 1.16 | .99 | .60 |
| 냉담성 | 6.72 | 1.47 | .98 | .68 |
| 냉소적 | 10.95 | 1.45 | .99 | .68 |
| 전체 | 8.72 | 1.85 | .99 | .78 |

합도 1.50의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값이 포함된 1.5~2.0 이하의 적합도의 경우 측정의 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적대감 하위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각 문항은 전체적으로 0.6~1.4의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나타냈으나 이기심의 42번 문항인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가 내적합도 1.89, 외적합도 1.86으로 나타났다. 42번 문항은 다소 과도한 양상을 보이나 2.0 이하의 수치로 측정의 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계획성 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각 문항은 0.6~1.4의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다.

**피험자×문항 분포도**

표 5에서는 FFMI 13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문항에 대한 피험자×문항 분포(WrightMap) 결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하위 요인들의 문항의 분포와 개인 특질 수준 분포가 유사하였고, 각 문항이 개인의 특질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포도 결과에서 신중함과 체계성 요인에서는 높은 수준의 피험자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는 문항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렴타당도 및 준거척도와의 상관분석**

표 6은 FFMI와 K-MPS, SD4, DD간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FFMI 주체성 요인과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

표 5. FFMI 하위요인 피험자×문항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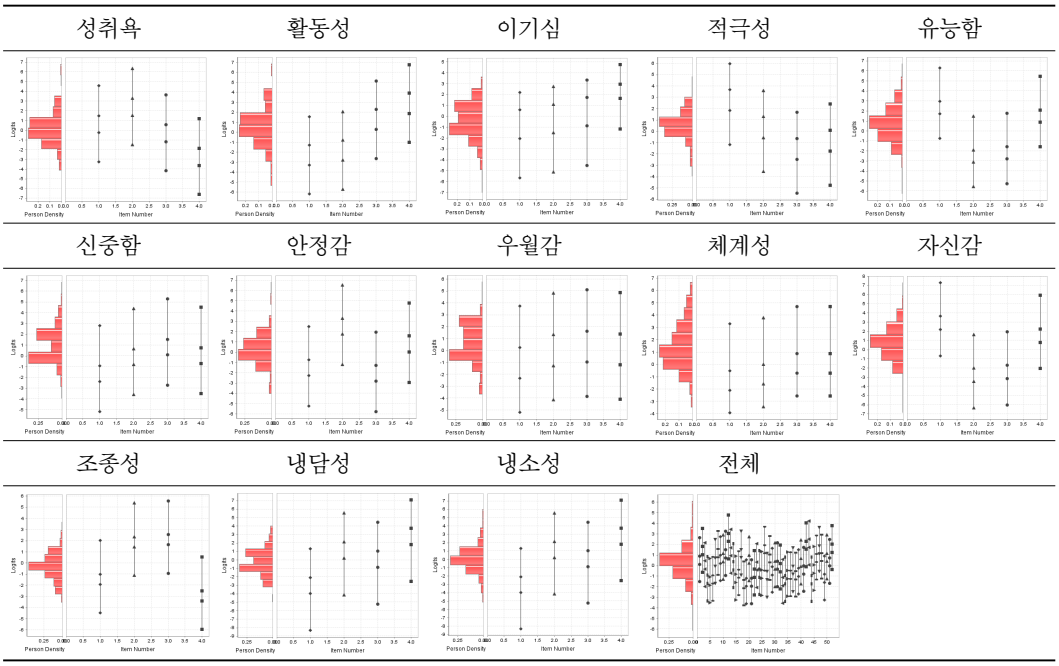


표 6. FFMI와 K-MPS, SD4, DD간 상관

| | | FFMI | | | |
|---|---|---|---|---|---|
| | | 주체성 | 계획성 | 적대감 | Total |
| K-MPS | | -.03 | -.20** | .51** | .14* |
| SD4 | 마키아벨리즘 | -.03 | -.09** | .34** | .01 |
| | 나르시시즘 | .56** | -.08 | -.12** | .44** |
| | 사이코패시 | -.11 | -.40** | .27** | .11** |
| | 사디즘 | -.13* | -.31** | .39** | -.05 |
| DD | 마키아벨리즘 | -.12* | -.27** | .43** | .00 |
| | 사이코패시 | -.11* | -.19** | .45** | .05 |
| | 나르시시즘 | .20** | -.11 | .03 | .16** |

주. $^{*}p < .05$, $^{**}p < .01$ K-MPS =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척도, SD4 = short dark tetrad, DD = Dirty Dozen

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계획성 요인과는 -.27~-.09의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적대감 요인과 .34~.51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FFMI의 총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14의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FFMI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를 비교

하였을 때,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유사한 상관을 보였으며,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10의 약한 상관값을 보여주었다.

표 7은 NEO 성인판 단축형과 FFMI, K-MPS, SD4. DD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FFMI 주체성은 친화성과 .37, 성실성과 .57, 외향성과 .62, 신경증과 -.37 개방성과 .44의 상관을 가졌다. 또한 계획성은 친화성과 .12, 성실성 .60, 신경증과 -.27의 상관을 가졌으며 외향성과 개방성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FFMI의 적대감은 친화성과 -.54, 성실성과 -.24, 외향성과 -.33, 신경증과 .38, 개방성과 -.12의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FFMI 총점은 친화성과 .13, 성실성과 .63, 외향성과 .41, 신경증과 -.26, 개방성과 .36의 상관을 나타냈다.

표 8은 FFMI, K-MPS, DD, SD4를 각 준거척도인 BIS-11(한국판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CASES(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공감 척도), RPQ(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척도), AQ(공격성 척도), STAXI(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와 상관을 비교하였다. 자세한 분석은 논의에서 다루었다.

## 논 의

연구 2에서는 FFMI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적 차원의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이후 각

표 7. NEO 성인판 단축형과 FFMI, K-MPS, SD4, DD의 상관

| | | NEO 성인판 단축형 | | | | |
|---|---|---|---|---|---|---|
| | | 친화성 | 성실성 | 외향성 | 신경증 | 개방성 |
| FFMI | 주체성 | .37** | .57** | .62** | -.37** | .44** |
| | 계획성 | .12** | .60** | -.03 | -.27** | .02 |
| | 적대감 | -.54** | -.24** | -.33** | .38** | -.12** |
| | 총점 | .13** | .63** | .41** | -.26** | .36** |
| K-MPS | | -.08 | .02 | .02 | .38** | .13** |
| SD4 | 마키아벨리즘 | .02 | -.02 | -.01 | .20** | .17** |
| | 나르시시즘 | .30** | .29** | .52** | .09 | .61** |
| | 사이코패시 | -.11* | -.14* | .15* | .43** | .20** |
| | 사디즘 | -.20** | -.13* | .03 | .31** | .07 |
| DD | 마키아벨리즘 | -.10 | -.16** | .05 | .31** | .15* |
| | 나르시시즘 | .21** | .06 | .28** | .17** | .10** |
| | 사이코패시 | -.38** | -.03 | -.08 | .25** | -.09 |

주. $^{*}p < .05$, $^{**}p < .01$, FFMI : 한국판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K-MPS =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 SD4 = Short Dark Tetrad, DD = Dirty Dozen

표 8. FFMI, K-MPS, SD4, DD와 BIS-11, CASES, RPQ, AQ, STAXI 상관분석

| | 주체성 | 계획성 | 적대감 | FFMI Total | MPS | SD4 MAC | SD4 NAR | SD4 PSY | SD4 SDD | DD MAC | DD PSY | DD NAR |
|---|---|---|---|---|---|---|---|---|---|---|---|---|
| BIS-11 총합 | -.43** | -.75** | .27** | -.54** | .30** | .15* | -.02 | .49** | .39** | .30** | .25** | .12* |
| 주의 충동성 | -.51** | -.61** | .25** | -.58** | .02 | -.02 | -.26** | .17** | .15* | .12* | .12* | -.08 |
| 운동 충동성 | -.30** | -.66** | .22** | -.41** | .36** | .18** | .08 | .51** | .42** | .28** | .28** | .17** |
| 무계획 충동성 | -.23** | -.56** | .19** | -.33** | .36** | .20** | .24** | .53** | .41** | .34** | .21** | .22** |
| CASES 총합 | .18** | .24** | -.32** | .10 | -.11* | -.06 | .01 | -.18** | -.29** | -.18** | -.39** | .07* |
| 인지적 공감 | .27** | .22** | -.23** | .22** | -.08 | -.01 | .23** | -.15* | -.20** | -.14* | -.33** | .09 |
| 감정적 공감 | .17** | .30** | -.36** | .09 | -.18** | -.11 | -.01 | -.25** | -.35** | -.23** | -.41** | .04 |
| 신체적 공감 | .04 | .14* | -.28** | -.05 | -.05 | -.05 | .05 | -.08 | -.21** | -.13** | -.30** | .06 |
| RPQ 총합 | -.13** | -.21** | .27** | -.07 | .36** | .23** | .26** | .52** | .46** | .53** | .42** | .28** |
| 반응적 공격성 | -.16** | -.10 | .27** | -.05 | .36** | .22** | .17** | .40** | .37** | .44** | .32** | .24** |
| 주도적 공격성 | -.09 | -.26** | .22** | -.07 | .30** | .19** | .29** | .52** | .45** | .51** | .43** | .26** |
| AQ 총합 | -.19** | -.22** | .34** | -.09 | .40** | .25** | .21** | .53** | .49** | .55** | .47** | .28** |
| 언어적공격성 | .01 | -.03 | .27** | .12* | .31** | .13** | .14** | .37** | .37** | .37** | .41** | .21** |
| 적대심 | -.33** | -.23** | .37** | -.21** | .40** | .29** | .08 | .41** | .33** | .47** | .34** | .21** |
| 신체적공격성 | -.08 | -.19** | .28** | -.01 | .37** | .27** | .27** | .53** | .56** | .55** | .48** | .24** |
| 간접적공격성 | -.26** | -.29** | .31** | -.19** | .33** | .22** | .17** | .50** | .49** | .52** | .42** | .31** |
| 분노 | -.14* | -.21** | .26** | -.08 | .31** | .18** | .25** | .48** | .41** | .50** | .41** | .27** |
| STAXI 총합 | -.20** | -.21** | .34** | -.10 | .42** | .28** | .20** | .43** | .40** | .52** | .38** | .32** |
| 특성분노 | -.16** | -.18** | .33** | -.05 | .44** | .29** | .23** | .41** | .40** | .48** | .34** | .36** |
| 상태분노 | -.26** | -.26** | .32** | -.18** | .34** | .19** | .16** | .44** | .40** | .54** | .38** | .25** |
| 분노억제 | -.38** | -.25** | .35** | -.27** | .37** | .28** | .01 | .34** | .29** | .40** | .27** | .23** |
| 분노표출 | -.19** | -.19** | .31** | -.10 | .35** | .24** | .17** | .44** | .36** | .42** | .34** | .25** |
| 분노조절 | .29** | .18** | -.15** | .26** | -.06 | -.01 | .12* | -.13* | -.07 | -.03 | -.02 | .02 |

주. $^{*}p < .05$, $^{**}p < .01$

척도 간의 상관을 비교하여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국내에서 연구 1에서 도출된 FFMI의 3요인 구조가 적합하며 모든 하위요인이 적절하게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FMI의 통합적 차원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의 단일차원성을 잔차 주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은 단일차원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Rasch 평정척도모형을 적용한 결과 외적합도의 값이 2.0 이하로 나타나며 단계조정값(Step Calibration)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FFMI의 5점 리커트 척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Hong et al., 2005). 각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자승값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52개 문항 중 주체성 요인의 하위요인인 적극성4번 문항(1.40, 1.42)로 Linacre(2004)가 제안한 생산적인 범위로 나타났으며, 주체성 하위요인의 우월감 8번 문항(1.49, 1.50)과 적대감 하위요인의 이기심 42번 문항(1.89, 1.86)이 다소 과도한 양상을 보이나 2.0 이하의 수치로 측정의 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정혁 2005; Linacre, 2004). 또한, Wright Map을 통하여 각 문항이 측정할 수 있는 특질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FFMI 문항의 정교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항 분리지수를 통해 FFMI 측정이 효과적이며, 구분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K-MPS. SD4마키아벨리즘, DD마키아벨리즘)의 상관을 분석하였을 때,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들은 주로 타인에 대한 불신, 조종, 통제의 문항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FFMI의 상위 요인인 주체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획성과는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FFMI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측정하지 못하는 마키아벨리즘의 계획적이고 주체적인 이론적 성격 프로파일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기심과 조종성, 냉담성과 냉소성을 포함한 적대감 요인의 경우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중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FFMI의 적대감 요인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마키아벨리즘의 조종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FMI는 기존 마키아벨리즘이 측정하고자 하였던 마키아벨리즘의 적대적인 성향과 측정하지 못한 주체적, 계획적 성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FMI 총점과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체 52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주체성 요인 28문항과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계획성 요인 8문항이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FFM 기반의 NEO 성인판 단축형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각 성격 요소의 성격 프로파일을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FMI의 총점과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각 요소의 상관관계가 구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를 성격 5요인 평가 도구와 비교 했을 때, 유사한 성격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개발 과정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Collison et al., 2018; Miller et al., 2017).

FFMI와 NEO 성인판 단축형의 상관분석에서 높은 성실성과 외향성과 개방성, 낮은 신경증은 원척도의 결과와 동일하지만 친화성의 경우 원척도에서 부적 상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국내와 국외가 구별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원척도의 경우 120문항의 IPIP-NEO SF(Maples et al., 2014)라는 FFM 평가 도구를 통해 상관을 비교하여 좀 더 세분화된 비교가 가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NEO 성인판 단축형이라는 25문항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탐색적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국내 마키아벨리즘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의 경우 높은 성취 욕구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특징으로 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김동노, 2023; 박종도, 2023; 조긍호, 2007)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연고주의적 특징을 가진 한국사회의 특징(류석춘 등, 2008; 엄영호 등, 2020)을 종합해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친화적인 성격 특성은 국내에서 오히려 마키아벨리즘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FFMI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및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의 경우 BIS-11과의 상관을 통해 충동성과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코패시의 경우 무계획 충동성과 운동 충동성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는데 (Maurer et al., 2021; Ruiz et al., 2010; Snowden & Gray, 2011) 본 연구결과,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뿐만 아닌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서도 무계획 충동성과 운동 충동성이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즘의 전문가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FFMI의 경우, 원척도 개발 연구와 동일하게 충동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충동성은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가 구별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ASES와의 상관을 확인해보면 SD4의 마키아벨리즘은 공감성과 특별히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K-MPS와 DD 마키아벨리즘의 경우 공감성과 부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 공감의 경우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CASES와 TriPM(Triarchic Psychopathy Model; 삼원 사이코패시 측정도구)의 상관을 비교한 연구(Raine et al., 2022)에서 감정적 공감이 큰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의 특징인 무정성을 측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마키아벨리즘 전문가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FFMI의 경우 감정적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CASES의 총점과 인지적 공감에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구별되는 평가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공격성을 측정하는 두 도구인 RPQ와 AQ를 비교한 결과에서 FFMI는 두 도구의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원척도 개발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마키아벨리즘의 공격성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는 RPQ 총합과 하위요인, AQ 총합과 하위요인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이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

(Brugman et al., 2017; Thomson & Centifani, 2018). 또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며(Bushman & Anderson, 2001) 두 형태의 공격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변수는 사이코패시이다(Blais et al., 2014; Garofalo et al., 2021; Raine et al., 2006). 본 연구결과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모두 주도적 공격성 및 반응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AQ의 공격성 하위요인과도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측정이 중복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STAXI 평가 도구를 통해 FFMI로 측정된 마키아벨리즘은 상태, 특성, 분노억제, 분노표출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며, 분노조절과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는데, Grabovac와 Dinic(2022)가 보고한 FFMI를 통해 측정된 마키아벨리즘의 개인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회복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FFMI의 주체성 요인이 외부자극에 대한 주체적 회복력을 포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체성 요인 또한 분노조절과 정적 상관을 가져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개인 또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모두 STAXI 총점과 분노 조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는 불안 상황에 분노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Sterling & Edelmann, 1988) 분노와 사이코패시 성격 특성은 복잡하지만 연관이 깊은 관계이기도 하다(Hicks & Patrick, 2006). 본 연구결과,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는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비슷한 양상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와 측정이 중복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 종합논의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공통적인 요인은 타인에 대한 적대심, 냉담함, 이기심 그리고 조종성 등이다(Paulhus & Williams, 2002; Rose et al., 2023; Vize et al., 2019).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사이코패시와 측정의 중복성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과 냉담함, 이기심, 조종성과 같은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공통적인 특성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두 평가의 중복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FFMI의 적대감 요인의 상관을 확인하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또한, 각 준거 척도와의 상관을 비교하였을 때, 적대감 요인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 그리고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상관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로 측정한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FFM 프로파일이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두 구성이 실제로는 같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마키아벨리즘이 사이코패시에 포함되는 관계라 밝혔다(O'Boyle et al, 2015). 즉, 기존 마키아벨리즘의 평가 도구가 마키아벨리즘의 특성을 측정한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시와 중복되는 공통 특성을 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의 중복성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타당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K-MPS의 경우, SD4와 DD 마키아벨리즘에 비해 FFMI 적대감 요인과 강한 상관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 비해 마키아벨리즘 성격의 비도덕적이고 조종적인 측면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 상관이 높아(r = .67, 김희송 등, 2011)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중첩된 특성을 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K-MPS는 마키아벨리즘 성격이 가지는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FFMI의 적대감 요인에 대해 Lynam 등(2023)은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핵심 공통 요인이며, 적대감이라는 핵심적인 요인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사회적 파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존 마키아벨리즘이 측정하고자 한 이기심과 조종성 등의 성격 특성들은 마키아벨리즘의 대인관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지만, 마키아벨리즘 개인의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FFMI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 방식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며, 마키아벨리즘의 전통적인 평가 범위를 넘어서 마키아벨리즘 개인의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성향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마키아벨리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서 보고된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와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의 측정 중복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두 평가 도구의 측정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FFM과 마키아벨리즘 전문가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FFMI는 두 평가 도구의 측정 중복성을 해결하고 마키아벨리즘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키아벨리즘의 이론적 개념에 부합하는 평가 도구로써 국내 마키아벨리즘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키아벨리즘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평판과 사회적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즘이 성향이 강한 개인은 집단이나 조직 사회 내에서 타인을 조종하며 하나의 매개체로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행동들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집단 및 조직 사회 내부에서 타인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등 파괴적 인간관계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구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FFMI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에 비해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 및 조직 분야에서 리더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세밀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직 내의 반사회적 행동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조직의 리더십 평가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FFMI는 조직 내 인간관계와 갈등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개인을 식별하여 이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개선함으로서 조직 내 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FFMI 특성 상, 조직 구성원의 성과와 직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주체성 요인이 직업적 성공과 긍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특정 범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마키아벨리즘 평가 도구는 높은 충동성을 포함하였고, 반사회성과 연관이 깊은 등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와의 중복성으로 인해 사이코패시와 구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FFMI를 통해 측정된 마키아벨리즘은 충동성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 사이코패시와 구별된다. 마키아벨리즘은 성공과 목적을 위해 전략적이고 교묘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착취적이고 조종적인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타인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과 교묘한 심리적 지배를 일삼는 특정 범죄 행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수준은 타 집단에 비해 높으나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짙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구성 개념을 평가했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과 보고자 스스로 생각한 모습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의 경우 타인을 조종하는 특성을 가졌지만, 직접적 공격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 본 연구결과 언어적 공격성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마키아벨리즘과 언어적 공격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Jessica & Paul, 2020). 마키아벨리즘이 언어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남녀 간의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수준에서 한국판 FFMI의 통합적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Rasch 모형을 활용하였다. Rasch에 활용된 표본은 300명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전체 직장인 또는 일반인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FFMI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통찰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직군과 인구 집단을 포함하여 Racsh 모형을 활용한다면 FFMI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길호. (2009). 양자체면이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이론화의 한 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2, 106-131.

권혁준, 이유경, 서종한 (2023). 한국판 SD4 (Short Dark Tetrad) 요인구조 탐색 및 타당화 연구: ESEM과 Rasch 평정척도모형을 활용하여. 경찰학연구, 23(1), 191-230.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153-196.
https://doi.org/10.37245/kjst.2023.05.63.153

김희송, 홍현기, 현명호 (2011).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MPS)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스트레스연구, 19(1), 21-30.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7, 203-269.

문희정, 안현의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EO 성인용 성격 검사 단축형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9(11), 535-561.
https://doi.org/10.21509/kjys.2022.11.29.11.535

박민정, 송지훈 (2023) 리더의 마키아벨리즘과 구성원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간의 관계: 조직침묵의 매개효과와 동료의 인상관리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HRD 연구, 25(2), 225-250.
https://doi.org/10.18211/KJHRDQ.2023.25.2.008

박소향, 박선영, 서종한 (2022). 우리 주변의 어두운 성격: Dirty Dozen 12 (DD) 타당화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3), 79-115.

박소향, 서종한, 홍정윤 (2022). 어두운 3 요소 성격 측정 도구(SD3)의 타당화 연구: ESEM과 DIF 분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6(4), 285-336.

박종도 (2023). 주관적 규범이 공격적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자기관의 조절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종철, 오현주, 이나희, 손하림, 이동귀, 배병훈 (2021). 한국판 어두운 성격 3 요소 단축형의 요인구조와 타당화 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511-539.
https://doi.org/10.24230/kjiop.v34i3.511-539

시기자, 성태제 (2006). PPT, CFT, CAT 에서 검사매체와 검사시행 모형에 따른 피험자 응답 적합도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19(3), 65-87.

엄영호, 안민우, 김정숙 (2020). 청년취업에 있어서 '연고주의 사회자본'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1(2), 1-17.

오용석 (2018) 경쟁 사회에 나타난 힐링 담론 고찰 - 불교명상의 관계론적 통찰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54, 237-267.

유민지, 최재란, 서종한 (2023). Rasch 평정척도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사이코패시 특성척도(YPI;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의 타당화연구. 경찰학연구, 23(3), 139-175.

윤민재 (2020). 한국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1257-1269.

이소라, 이원혜, 박정수, 김설민, 김종우, 심재현 (2012). 한국판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일반성인집단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1,* 378-386.

정혁 (2005). Rasch 모형: 서열척도 분석의 대안적 방법. 코칭능력개발지, 7(3), 133-141.

조긍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https://doi.org/10.21193/kjspp.2007.21.4.002

조호진, 이풍가, 마홍, 옥지수 (2022). 한국어판 단축형 어둠의 3 요소 척도(K-Dirty Dozen)의 타당도와 요인구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5(2), 299-326. https://doi.org/10.24230/kjiop.v35i2.299-326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최진혁, 전성진, 홍슬기, 김아로, 박지윤, 양희준 (2021). 라쉬 측정 이론에 의한 파킨슨병 환자 대상 한국어판병원불안-우울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대한신경과학회지, 39(4), 312-321. https://doi.org/10.17340/jkna.2021.4.7

허창구 (2020). 스펙경쟁 사회에서 자기계발 동기와 자기계발 강박이 취업준비생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1), 93-117. https://doi.org/10.24230/kjiop.v33i1.93-117

Blair, R. J. R. (2018). Traits of empathy and anger: implications for psychopathy and other disorders associated with aggress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3*(1744), 20170155. https://doi.org/10.1098/rstb.2017.0155

Blais, J., Solodukhin, E., Forth, A. E. (2014). A meta-analysi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instrumental versus reactive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7), 797-821. https://doi.org/10.1177/0093854813519629

Bond, T. G., & Fox, C. M. (2013). Applying the Rasch model: Fundamental measurement in the human sciences.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315814698

Bushman, B. J., Anderson, C. A. (2001). Is it time to pull the plug on hostile versus instrumental aggression dichotomy?. *Psychological Review, 108*(1), 273. https://doi.org/10.1037/0033-295X.108.1.273

Buss, A. H., & Warren, W. L. (2000). *Aggression questionnaire (AQ)*. Torrence,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Vol.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13085

Chiang, K. S., Green, K. E., Cox, E. O. (2009). Rasch analysis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The Gerontologist, 49*(2), 262-275. https://doi.org/10.1093/geront/gnp018

Coccaro, E. F., Lee, R., & McCloskey, M. S. (2014).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ggression, anger, impulsivity, and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Aggressive Behavior, 40*(6), 526-536. https://doi.org/10.1002/ab.21536

Collison, K. L., Vize, C. E., Miller, J. D., & Lynam, D. R. (2018).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five factor model measure of Machiavellianism. *Psychological Assessment, 30*(10), 1401. https://doi.org/10.1037/pas0000637

Culture and Psychology. (n.d.). Five Factor Model and Cross-Cultural Research. Open Maricopa. Retrieved from https://open.maricopa.edu/culturepsychology/chapter/five-factor-model-and-cross-cultural-research/

Dahling, J. J., Whitaker, B. G., & Levy, P. E.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achiavellianism scale. *Journal of Management, 35*(2), 219-257. https://doi.org/10.1177/0149206308318618

DeLisi, M., Tostlebe, J., Burgason, K., Heirigs, M., & Vaughn, M. (2018). Self-control versus psychopathy: A head-to-head test of general theories of antisocialit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6*(1), 53-76. https://doi.org/10.1177/1541204016682998

DDu, T. V., Collison, K. L., Vize, C., Miller, J. D., & Lynam, D. R.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short form of the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FFMI-SSF).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3*(6), 732-739. https://doi.org/10.1080/00223891.2021.1878525

Erkutlu, H., & Chafra, J. (2019). Leader psychopathy and organizational devian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t, 12*(4), 197-213. https://doi.org/10.1108/IJWHM-12-2018-0154

Eysenck, H. J. (1979). Crime and personality. *Medico-Legal Journal, 47*(1), 18-32. https://doi.org/10.1177/002581727904700104

Fehr, B., Samsom, D., & Paulhus, D. L. (2013). The construct of Machiavellianism: Twenty years later. *In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 77-116).

Furnham, A., Richards, S. C., & Paulhus, D. L. (2013).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A 10 year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3), 199-216. https://doi.org/10.1111/spc3.12018

Garofalo, C., Neumann, C. S., & Velotti, P. (2021). Psychopathy and aggression: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3-24), NP12640-NP12664. https://doi.org/10.1177/0886260519900946

Glenn, A. L., & Sellbom, M. (201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rns regarding the dark triad as a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9*(3), 360-377. https://doi.org/10.1521/pedi_2014_28_162

Grabovac, B., & Dinić, B. M. (2022). "The Devil in Disguise": A Test of Machiavellianism Instruments (the Mach-IV, the Machiavellian Personality Scale, and the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Primenjena Psihologija, 15*(3), 327-353. https://doi.org/10.19090/pp.v15i3.2391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DSM-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91-398. https://doi.org/10.1037/0021-843X.100.3.391

Hicks, B. M., & Patrick, C. J. (2006). Psychopathy and negative emotionality: analyses of suppressor effects reveal distinct relations with emotional distress, fearfulness, and anger-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2), 276-287. https://doi.org/10.1037/0021-843X.115.2.276

Hong, S., Kim, B. S., & Wolfe, M. M. (2005). A psychometric revision of the European American Values Scale for Asian Americans using the Rasch model.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4),

194-207. https://doi.org/10.1080/07481756.2005.11909760

Hunter, J. E., Gerbing, D. W., & Boster, F. J. (1982). Machiavellian beliefs and personality: Construct invalidity of the Machiavellianism dim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293-1305. https://doi.org/10.1037/0022-3514.43.6.1293

Jarvis, J. A., Corbett, A. W., Thorpe, J. D., & Dufur, M. J. (2020). Too much of a good th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s, 9*(11), 187. https://doi.org/10.3390/socsci9110187

Jonason, P. K., & Kavanagh, P. (2010). The dark side of love: Love styles and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06-610. https://doi.org/10.1016/j.paid.2010.05.030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Kückelhaus, B. P., Blickle, G., Kranefeld, I., Körnig, T., & Genau, H. A. (2021).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Validation of a new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3*(4), 509-522. https://doi.org/10.1080/00223891.2020.1784182

Lim, K. M. (2015). Application of Rasch analysis to the Korean recovery assessment sca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54-361.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354

Linacre, J. M. (2004a). *Facets Rasch measurement computer program.* Chicago: Winsteps.com.

Linacre, J. M. (2004b). *A user's guide to WINSTEPS MINISTEPS: Rasch-model computer programs*. Chicago: Winsteps.com

Lynam, D. R., Gaughan, E. T., Miller, J. D., Miller, D. J., Mullins-Sweatt, S., & Widiger, T. A. (2011). Assessing the basic traits associated with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108-124. https://doi.org/10.1037/a0021146

Machiavelli, N. (2020). *The prince (Original work published 1532)*. Planet eBook. https://www.planetebook.com/the-prince/

Maurer, J. M., Tirrell, P. S., Anderson, N. E., Rodriguez, S. N., Caldwell, M. F., Van Rybroek, G. J., & Kiehl, K. A. (2021). Dimensions of impulsivity related to psychopathic traits and homicidal behavior among incarcerated male youth offenders. *Psychiatry Research, 303,* 114094.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1.114094

Mayor, E., Daehne, M., & Bianchi, R. (2020).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and attitudes toward cognitive enhancement. *BMC Psychology*, 8(1), 1-12. https://doi.org/10.1186/s40359-020-00486-2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 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2.tb00970.x

Miller, J. D., Few, L. R., Wilson, L., Gentile, B., Widiger, T. A., MacKillop, J., & Keith Campbell, W. (2013).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FFNI): a test of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incremental

validity of FFNI scores in clinical and community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48-758. https://doi.org/10.1037/a0032536

Miller, J. D., Hyatt, C. S., Maples Keller, J. L., Carter, N. T., & Lynam, D. R. (2017).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A 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85*(4), 439-453. https://doi.org/10.1111/jopy.12251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Newman, J. P., Kosson, D. S., & Patterson, C. M. (1992). Delay of gratification in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offen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4), 630-636. https://doi.org/10.1037/0021-843X.101.4.630

O'Boyle, E. H., Forsyth, D. R., Banks, G. C., Story, P. A., & White, C. D. (2015). A meta analytic test of redundancy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dark triad and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3(6), 644-664. https://doi.org/10.1111/jopy.12126

O'Hair, D., & Cody, M. J. (1987). Machiavellian beliefs and social influence.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Includes Communication Reports), 51*(3), 279-303.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https://doi.org/10.1016/S0092-6566(02)00505-6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0).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602

Persson, B. N., Kajonius, P. J., & Garcia, D. (2019). Revisiting the structure of the Short Dark Triad. *Assessment, 26*(1), 3-16. https://doi.org/10.1177/1073191117701192

Porter, S., Woodworth, M., & Black, P. J. (2006). Psychopathy and aggression. *In Handbook of Psychopathy* (pp. 481-494).

Raine, A., Chen, F. R., & Waller, R. (2022). The cognitive, affective and somatic empathy scales for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5,* 111238. https://doi.org/10.1016/j.paid.2021.111238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 Kopp, L., Lynam, D., Reynolds, C., ...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59-171. https://doi.org/10.1002/ab.20115

Rogoza, R., & Cieciuch, J. (2020). Dark Triad traits and their structure: An empirical approach.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39*(4), 1287-1302. https://doi.org/10.1007/s12144-018-9834-6

Rose, L., Lynam, D. R., & Miller, J. D. (2024). Measuring the "Dark" Triad: Comparing the Five-Factor Model Antagonistic Triad Measure to Other Commonly Used Self-Report Instruments. *Assessment, 31*(4), 863-874

https://doi.org/10.1177/10731911231190097

Ruiz, M. A., Skeem, J. L., Poythress, N. G., Douglas, K. S., & Lilienfeld, S. O. (2010). Structure and correlates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11) in offenders: Implications for psychopathy and externalizing pat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9*(3), 237-244. https://doi.org/10.1080/14999013.2010.517258

Snowden, R. J., & Gray, N. S. (2011). Impulsivity and psychopathy: Associations between the Barrett Impulsivity Scal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Psychiatry Research, 187*(3), 414-417.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1.02.003

Sterling, S., & Edelmann, R. J. (1988). Reactions to anger and anxiety provoking events: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groups compare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2), 96-100. https://doi.org/10.1002/1097-4679(198803)44:2<96::AID-JCLP2270440202>3.0.CO;2-A

Thomson, N. D., & Centifanti, L. C. (2018).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ubgroups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e role of executive functioning,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9*(2), 97-208. https://doi.org/10.1007/s10578-017-0741-0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https://doi.org/10.1177/109442810031002

Vize, C. E., Collison, K. L., Miller, J. D., & Lynam, D. R. (2020). The "core" of the dark triad: A test of competing hypothes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1*(2), 91-99. https://doi.org/10.1037/per0000386

Vize, C. E., Lynam, D. R., Collison, K. L., & Miller, J. D. (2018). Differences among dark triad component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9(2), 101-111. https://doi.org/10.1037/per0000222

Wilson, L., Miller, J. D., Zeichner, A., Lynam, D. R., & Widiger, T. A. (2011). An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Relations with other psychopathy measures, agg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3), 315-322. https://doi.org/10.1007/s10862-010-9213-6

투고일자 : 2024-04-18
수정일자 : 2024-06-25
게재일자 : 2024-07-25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24. Vol. 37, No. 3, 119-150
https://doi.org/10.24230/kjiop.v37i3.119-150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FFMI)

**Changhyeong Nam** **Jonghan Sea**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FFMI) in Korea. Machiavellianism, one of the dark triad personality traits, is characterized by a goal-oriented personality that justifies the means for the end. In Study 1, the FFMI was translated to suit the Korean context,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ong with partial constraint target rotation,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210 adults aged 19 and above. The results revealed the same three higher-order factor structure as the original scale, identifying Agency, Planfulness, and Antagonism as the factors, with some shifts in sub-factors observed.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a different sample of 300 adults aged 19 and above, confirming that the FFMI is a generalizable tool. Additionally, a Rasch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FMI's 5-point Likert scale is appropriate. Upon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items, three out of the 52 items were found to have a minimal impact on the quality of measurement and were excluded, leaving the remaining items at an appropriate level. Finally, convergent validity and correlation analyses with criterion measures demonstrated that the FFMI could serve as a substitute for existing Machiavellianism assessment tools and effectively captures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Machiavellianism.

*Key words : FFMI, Machiavellianism, FFM, Rasch*

**<부록> FFMI 문항과 요인**

| 상위요인 | 하위요인 | 번호 | 문항 |
|---|---|---|---|
| 주체성 | 성취감 | 1 | 나는 야망있는 사람이 아니다. (R) |
| | | 14 | 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
| | | 27 | 나는 최고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
| | | 40 |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
| | 활동성 | 2 | 친구들은 나를 게으르다고 할 것이다. (R) |
| | | 15 |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
| | | 28 | 나는 평소 에너지가 넘친다. |
| | | 41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활동적이다. (R) |
| | 적극성 | 4 |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R) |
| | | 17 | 나는 매우 설득력 있는 사람이다. |
| | | 30 |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
| | | 43 | 사람들은 내가 자기주장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R) |
| | 유능함 | 5 | 어떤 일이든 환벽하게 해낸 것 같지는 않다. (R0 |
| | | 18 |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일을 잘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
| | | 31 | 나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
| | | 44 | 종종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R) |
| | 안정감 | 7 | 사람들은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 말한다. |
| | | 20 |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R) |
| | | 33 | 나는 감정이 앞서서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다. (R) |
| | | 46 | 나는 쉽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 | 우월감 | 8 | 사람들에게 겸손이란 덕목은 지나치게 좋은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
| | | 21 | 나는 대부분의 또래들보다 더 똑똑하다. |
| | | 34 | 내 동료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은 쉽다. |
| | | 47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
| | 자신감 | 10 |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자신있다. |
| | | 23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R) |
| | | 36 | 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
| | | 49 |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 |

**<부록> FFMI 문항과 요인** **(계속)**

| 상위요인 | 하위요인 | 번호 | 문항 |
|---|---|---|---|
| 계획성 | 신중함 | 6 | 나는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
| | | 19 |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라'는 나를 잘 표현하는 문장이다. (R) |
| | | 32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R) |
| | | 45 | 나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
| | 체계성 | 9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
| | | 22 | 나는 무엇이든 제자리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 |
| | | 35 | 나는 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R) |
| | | 48 |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보단 즉흥적인 것을 선호한다. (R) |
| 적대감 | 이기심 | 3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R) |
| | | 16 | 나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R) |
| | | 29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 |
| | | 42 |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 |
| | 조종성 | 11 | 가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
| | | 24 | 나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은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R) |
| | | 37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들에게 아첨한다. |
| | | 50 | 정직함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
| | 냉담성 | 12 | 나는 친절한 사람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
| | | 25 | 나는 특별히 공감적인 사람이 아니다. |
| | | 38 | 나와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
| | | 51 | 다른 사람들은 나를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
| | 냉소성 | 13 |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
| | | 26 |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 (R) |
| | | 39 | 나는 대체로 사람들이 선하다고 굳게 믿는다. (R) |
| | | 52 |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을 보려고 한다. (R) |

(R) : 역문항